



이웃종교

RELIGION

‘인터콥’ 여행제한국 ‘공격적 선교’

개신교 봉사단체 다케스탄 입국 두고 ‘논란’

개신교 봉사단체 ‘인터콥’이 정부가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국가로 봉사활동 및 단기선교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모스크바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목사와 신자로 구성된 인터콥 일행 44명이 다케스탄으로 들어갔으며, 이를 안 우리 외부에서 즉각 위협지역을 벗어나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케스탄 공화국은 작년 10월 이슬람 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경찰 1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지난 수년간 테러와 폭력이 반발해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는 “인터콥 관계자는 정부의 경고 공문을 받고 이들이 18일 현지로 떠나 현재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고 조만간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개신교계 인터넷 뉴스사이트 ‘뉴스앤조이’는 17일 목회자와 신도 44명의 다케스탄 공화국 입국에 관해 ‘인터콥, 공격적 선교 또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과거 샘물교회 봉사단 사건을 결부시키는 듯한 발언

인 ‘공격적 선교’라는 어휘 선택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공격적 선교’인지 ‘선교와 관련한 편견’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ID ‘조로아스터’는 “다른 이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으면서 공격적 선교가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인터콥의 러시아 방문을 비판했고, ID ‘yb’는 “1992년부터 매년 여름, 겨울마다 무사히 잘 다녔던 다케스탄 공화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과 옹호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너는 기자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이 교파를 초월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1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약 2000여 기독교인이 모여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가졌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에 관한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기를 위해 해마다 1월 18-25일 가톨릭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WCC가 정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의 해’로, ‘일치기도주간’에는 한국 기독교계가 준비한 공동 기도문이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 공동 기도문은 기독교 구약 성경의 삼대 예언서 가운데 한 권인 <에제키엘>의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국가 간 분쟁과 분열의 극복, 경제위기의 타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너는 기자

창립 400주년 예수수도회

‘예수수도회’가 창립 400주년을 맞아 1월 30일 대전 가톨릭 대홍동성당에서 기념미사를 연다.

이날 기념미사에는 예수수도회 소속 수녀 200여 명과 신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수수도회는 1609년 프랑스 생 오메르 지방에서 영국 출신 메리워드(1585~1645)가 창설했다. 로마 등 유럽 곳곳에 최초로 현대식 교육과정 확립을 세웠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을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도 각종 교육시설과 기관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등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자선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 예수수도회는 1964년 다섯 명의 한국수녀와 두 명의 독일수녀, 타라시아 관구장 등으로 시작됐다. 1964년 8월 수녀원 완공과 함께 여섯 명의 지원자가 입회했으며, 1966년 11명의 수녀가 처음으로 착복식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너는 기자

마음공부회 설립 원불교 본격활동

원불교는 교단의 화두였던 ‘마음공부의 사회화’를 위해 구립 17일 ‘사마음공부회’ 법인을 설립해 활동을 본격화했다.

‘마음공부’는 원불교를 특징 짓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교화훈련부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마음공부의 개념과 정체성,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몇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정리해왔다. 마음공부회는 앞으로 스마음공부 지도자 양성 △학교 수련회 유치 및 동아리 개설 △마음공부교재 개발 △마음공부 센터 마련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마음공부는 대내외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곳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 교도들을 비롯해 청소년, 가정 및 교육현장과 일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시도해왔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도덕성 회복 및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현재 사회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이너는 기자

“아이들과 같이 만드니 보람있어요”

미래에셋봉사단 승가원서 떡국잔치

2007년 펀드 열풍을 주도하며 펀드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미래에셋(회장 박현주)은 지난해 수난시대를 겪었다. 순식간에 시종자금 4조원 이상을 끌어 모으며 펀드투자문화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었지만 증시 폭락으로 펀드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피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비난과 잇따른 소송에 시달려 왔다. 이런 가운데 평소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불자로 알려진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봉사단’이 고객의 신뢰회복과 희망을 다지기 위해 1월 17일 승가원 장애인복지시설(관장 동욱)을 방문해 설날맞이 ‘떡국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에셋 임직원 30여 명은 가족들과 설 명절을 보내

지 못하는 뇌병변·지적장애아동들과 함께 명절분위기를 만끽했다.

봉사단원들은 시설을 둘러 본 후 시설 어린이들과 짝을 짓고 각자 맡은 음식을 만들며 시작했다. 만든 요리는 떡국, 갈비찜, 주먹밥, 산적 등, 어린이들은 “아빠, 오빠, 엄마”라고 자신의 짝을 부르며 열심히 꼬치를 끼우고, 갈비찜 양념을 만들고, 주먹밥을 만드는 등 재미있게 요리했다.

동욱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요리를 만드며 보고, 느끼고 ‘불이 뜨겁구나’라고 알게 하는 등 지각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주먹밥만 들기는 뇌병변장애아동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인



미래에셋 자원봉사단은 1월 17일 승가원 아동복지시설(관장 동욱)에 방문해 시설어린이들과 음식을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 지각발달에 도움 되는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를 주도한 미래에셋봉사단장 이계원 상무(사회공헌실)는 “승가원과 작은 결연을 맺고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인데 굉장히 보람있고 좋았다”며 “애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활동적

이고 밝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지는 어린이와 짝을 이룬 정남선 팀장(사회공헌실)은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아서 즐거웠었다”며 “미래에셋의 사회목적

지, 지각발달에 도움 되는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산하 58개 봉사단이 계속 돌아가면서 꾸준한 봉사하며 사회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너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국내 첫 실버영화관 개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하루 3번 상영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비례한 노인들의 문화욕구에 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가 1월 21일 개관식을 가졌다.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국내 최초 노인전용 영화관 ‘실버영화관’을 종로에 열었다.

서울시 주최, SK 케미칼 후원,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 영화관은 종로구 낙원동의 허리우드 클래식 시네마(구 허리우드극장)에서 300석 규모로 마련됐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30분, 2시 30분 상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일문 스님,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 이인섭 SK케미칼 대표이사, 김충용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일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하며 어르

신 전용극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어르신들의 추억이 깎여있는 종로에 개관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라진구 부시장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신나게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버영화관은 57세 이상 어르신들이 2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노인과 관련된 영화나 추억의 영화 등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너는 기자

11년째 쌀 나누기 ‘훈훈’

좁도리모금쌀 나누기

1월 21일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현백)는 서울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좁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쌀 400포대를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스님 등 4인)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승경 대표(새마을금고연합회) 등 1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오 스님은 “매해 설을 앞두고 어

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모금 활동을 펼쳐 쌀을 지원해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감사하다”며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사회의 품을 느끼며 희망을 갖고 살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좁도리모금쌀 나누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11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전달된 쌀은 서구노인복지관, 거창군 숲의 쉼터 등 재단 산하시설 6곳에 제공된다.

이너는 기자

행복나눔 청소년 스키캠프 열려

먹거리나누기운동협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스님 등 4인)는 SK텔레콤의 후원으로 1월 15-16일 흥천대명비발디파크에서 ‘행복나눔 청소년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빈곤가정과 농촌지역의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인격형성과 자신의 미래를 설

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다.

SK텔레콤수도권마케팅본부(본부장 김형근)는 “수도권의 빈곤가정과 문화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의 빈곤 소외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 및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부터 매년 1월 4번째 행복나눔 스키캠프를 지원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너는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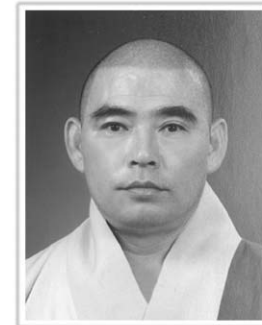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동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